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4월 28일(금)
(윤력 3월 9일)
Пятница
28 апреля 2023г.
№ 16 (1203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봄과 노동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5월 1일은 자연의 소생을 상징하고, 사회 발전과 인간의 삶에 질적 향상의 근간이 되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고향을 사랑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유익한 광물과 해산물을 채취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며, 치료하고, 주택과 사회적 시설들을 건설하고, 주택과 주택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해마다 각 도시와 마을들이 더욱 잘 정돈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할린주가 핵심 산업들에서 대규모 기회에 착수한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 경제와 사회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 조성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전문적인 자기실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어 사할린과 쿠릴 주민의 차세대를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각 가정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봄의 활기찬 기운과 근로에서의 성공과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봄과 노동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5월 9일 군사 퍼레이드, 명절콘서트 불꽃놀이로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승전 기념일 행사의 주요 이벤트는 군사 퍼레이드다. 저녁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퍼레이드를 즐기고 불꽃놀이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5월 9일을 며칠 앞두고 "바흐타 파마티", "승리의 창", "집에서의 퍼레이드" 및 기타 이벤트가 시작된다. 4월 24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승리"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기념행사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사할린 주에서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는 높은 기준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노병들과 전선 후방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에 사회부와 보건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모두가 축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5월 9일 퍼레이드에 참석할 수 없는 전쟁 노병들과 전선 후방근로자들을 위해 5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에서 개인 미니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참전용사들을 위해 밴드가 군가를 연주한다. 또한 연휴 전날에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참전용사의 테마 그림과 초상화로 장식하여 참여하는 '승리의 창문' 캠페인이 시작된다. 4월 25일부터 "게오르기 리본" 캠페인이 지역에서 시작되

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승리의 상징을 배포하고 있다.

5월 9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영광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명절행사가 시작된다. 그 다음 승리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다. 또한 군사 장비 전시회가 열리고 저녁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콘서트를 즐기고 불꽃놀이로 절정을 맞이한다.

올해 처음으로 현재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사할린 출신의 군인수가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참전용사들에게 영상 인사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불멸의 연대' 캠페인을 계속 합니다. 올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참가자가 '자동차 불멸의 연대' 랠리에 참가하여 창문에 참전용사의 초상화를 붙인 자동차를 타고 달릴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셜 네트워크와 텔레비전 채널(OTV-Sakhalin, ASTV 등 지역 채널 포함)에서도 널리 방송될 예정입니다."라고 전 러시아 대중 운동 '불멸의 연대' 지역 본부 책임자 안드레이 푸겐피로프가 말했다.

5월 5일, 사할린에서 "바흐타 파마티 (추념의 교대)" 캠페인이 시작된다. 사할린 활동가들은 이번 시즌에 다시 한 번 큰 계획을 세웠다.

단신

러시아정부, 새로운 농기업 개발을 위해 사할린주에 2억 4,500 만 루블리 할당

러시아 정부는 보로네슈, 사할린 및 연해주의 농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억 루블리 이상을 할당한다. 이 사실은 러시아 정부의 텔레그램 채널에 보도되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농업 회사 설립을 위해 사할린 주에 2억 4,500만 루블리를 할당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지시 명령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서명했다.

사할린주에서는 이 기금을 통해 쿠나쉬르 섬의 유즈노쿠릴스크에서 가동을 시작할 어분 및 어유 공장 설립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 "아빌림픽 2023" 지역 선수권 대회 개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8회 지역 아빌림픽 직업 기술 챔피언십이 4월 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었다. 재봉, 제과, 목공, 제빵, 미화관리 등 27개 직종에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 개막식은 "스톨리차"의 콩그레스 홀에서 열렸다. 대회는 14세 이상의 학생, 대학생, 전문가 등 세 가지 연령층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올해 새로운 역량이 추가되었다. 이 대회에는 패널 토론, 마스터 클래스 및 견학이 포함된 비즈니스 및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회 결과는 2023년 4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발표된다. 지역 우승자는 사할린 대표팀에 포함돼 전국 챔피언십 예선전에 출전하게 되며, 이후 2023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국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최고를 가리게 된다.

사할린 주, 진드기 5마리에서 보렐리아균 발견

현재 진드기 유행 기간 동안 사할린주에서 진드기에 물렸다는 보고가 24건 접수되었다. 아나와, 코르사코프,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의료 기관에 연락했다.

진드기는 사할린 주 위생 및 역학 센터의 실험실에서 전문가들이 검사한다. 전문가들은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7마리의 진드기를 확인했다. 이 중 5건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성 보렐리아균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역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 언론부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뇌염 예방 접종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섬에서 567명이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이 중 255명은 어린이들이다. 250명에 대한 재접종이 완료되었다.

예방 접종은 지역 예산과 시민 기금으로 구입한 백신으로 수행된다. 올해는 3,667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991명에게 백신 접종 및 재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할린, 긍정적 성과 유지 주 정부, 2023년 1분기 개발 결과 발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규모의 사할린 주 정부 회의를 주재했다. 내각 회의에서 각료들은 2023년 1분기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 분야에서는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회의 말미에 주지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 업계는 노후 주택 거주자 재정적 및 사회 시설 건설에 높은 비율을 유지해 왔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천 명의 가족을 돕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조기 진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올해 처음 몇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500여 가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들 중 1,600명 이상이 낙후된 주택에서 이사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직접 짓고 주택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600여 가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280 가구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노후 주택 재건 프로그램에 따라 노글리키 지역의 오하, 왈 마을,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포로나이스크, 아나와, 쉬코탄의 말로쿠릴스크에, 쿠나쉬르의 유즈노쿠릴스크에 새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샤흐초르스크에서 섬에 수요가 높은 전문가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제공되었습니다."라고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 알렉세이 콜레와티흐가 말했다.

사할린의 사회 시설 건설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는 샤흐초르스크에 문화 개발 센터와 400명 규모의 초등학교, 이투루프에 학교와 쿠나쉬르에 유치원, 아도티모보와 노워트 로이츠코예에 문화 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동양 무술 학교와 복지 센터, 일린스크, 체호브, 마카로브에 스포츠 단지, 샤흐초르스크와 노글리키에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등이 완공될 예정이다.

사할린 지역의 빈곤층 비율은 작년 7.4%에서 3.7%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약 3,500가구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3~7세, 8~17세 아동에 대한 월별 지원금과 대상별 식량 지원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빈곤 퇴치" 프로젝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직업 훈련을 받고, 사회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인 가족을 지원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할린 군인 가족들은 식량과 의약품 제공, 장작과 석탄 배달, 의료 지원, 일자리 알선, 노인 친척 돌봄 지원,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 마련, 법률 자문 및 심리 지원 등에 5,000건 이상의 요청을 접수했다. 또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도로 섬에서 동원된 가족에게 일시불로 30만 루블리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올해 1분기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68.4세에서 70.7세로 늘어난 것이다. 조기 진단 덕분에 순환기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 대부분의 새로운 악성 종양이 초기 단계에 발견되고 있다.

"올해 이미 약 97,000명이 건강 검진 및 예방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약 30,000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현대식 진단 센터에서 검진을 받았습니. 환자에 대한 피드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대해 평균 4.2점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이 말했다.

주 정부 회의에서는 다른 중요한 부문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주택 및 공동 서비스 부문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27채의 주택을 점검하고 100개의 출입구를 수리했다. 또한 티몴스코예 지역의 키롭스코예와 조날노예에 친환경 가스 보일러를 건설하고 마카로브 보일러 공장의 그리드 가스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도시에서는 규정에 맞는 도로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지역 도로 구간인 리스트웬 니츠노예-오호초코예, 페트로파블롭스코예-위스크레센스코예-아나와-솔로비요브카, 유즈노사할린스크 남서쪽 우회도로,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이 보수될 예정이다. 베레즈냐카의 젤료나야 길, 네웰스크의 프리모르스카야 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라이니아 갈, 레닌 길, 포베다 대로 구간이 대대적으로 보수될 예정이다.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도 발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달네예 노선의 경우 운항 횟수가 하루 12회에서 30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교통 체증이나 환승 없이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지역 내 항공 노선의 편리함 또한 높이 평가했다. 올해 약 3,000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샤흐초르스크, 조날노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레오니도보 간의 항공편을 이용했다. 3,200명 이상의 승객이 지역 예산에서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노선의 해상 운송을 이용했다. 코르사코브-쿠릴열도, 쿠나쉬르-쉬코탄, 파라무쉬르-캄차트카 노선이 그것이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여름철에는 쿠릴 열도로 가는 항공편 및 선박 운항 편수를 늘려서 섬 주민들이 관광 시즌 동안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할린 주에서 계속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후 주거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재정적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들이 모든 종합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 진료 예약에 대한 불만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신속하게 예약하고 양질의 진료와 정중한 응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온라인 의사 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병원과 종합병원의 전문가가 부재 중이거나 상근 직원을 찾는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도로와 공공 용지에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전했다.

(사할린 주 정부 제공)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아트 조찬 참가자,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에 몰두

사할린주 미술관에서 새로운 형식의 전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 보도부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조식 시간에 위대한 거장 중 한 사람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그의 스타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4월 23일에 열린 예술 조찬에는 중소 및 대기업 여성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노나 라브리크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박물관 방문객들은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예술가 중 한 사람인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삶과 작품에 대해 배우고 그 화가의 스타일로 마트료시카에 그림을 그렸다.

주미술관에서 이 프로젝트는 작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예술 조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박물관 웹사이트와 "문화의 섬" 포털에 공지된다.

참가자 아트- завтра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грузились в искусство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новый формат. Раз в месяц воскресным утром за завтраком можно прослушать лекцию об одном из великих мастеров и после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его стиле,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арт-завтрак 23 апреля пригласили деловых женщин —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ст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Гости музея узнали о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противоречивых художников XX столетия — Казимире Малевиче. А после освоили роспись матрешек в его стиле.

Проект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запустил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арт-завтраков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Анонсы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мещаются на сайте музея и на портале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4건의 사할린 프로젝트 "함께 살기" 국가상 후보에 올라

4건의 사할린 프로젝트가 "함께 살기" 국가상 후보에 올랐다. 그중 하나는 티몴스코예구역 치르-운브드 마을 봉사자들이 제출한 "전통을 유지하면서"란 프로젝트이다. 이 마을에서는 여름철 산란기에 하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첫 송어 맞이 '테니 구' 축제를 27년째 개최하고 있다. "함께 살기" 국가상 프로젝트 홍보실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과 손님들은 매년 티미 강변에 모여 땅의 정령에게 대접하고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고 전통 요리를 맛본다.

두 번째 후보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재미있는 지역 역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들은 게임과 퀴즈를 통해 도시의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들에게 고향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나탈리아 안티포와는 "문학 지역사의 가치는 문화와 삶의 연관성을 더 완전히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로 지역 박물관 축제 "21세기박물관"의 목표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직업, 지역,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있다. 이는 2013년부터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4개의 지역 축제가 개최됐다.

응모 캠페인은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함께 살기" 프로젝트는 시민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지역 사회에 단결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배려심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수상자는 5개 부문에서 선정된다.

Четыре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екта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емию «Жить вместе»

Четыре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емию «Жить вместе». Один из них — «Сохраняя трад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волонтерами из села Чир-Унвд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т уже 27 лет подряд в селе проводится праздник «Тени Гу», который посвящен первому ходу горбуш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ела ежегодно собираются на берегу реки Тымь, чтобы кормить духов зем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спорта и дегустировать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общились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емии «Жить вместе».

Второй номинант — проект «Заниматель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лонтеры этого проекта знакомят детсадовцев и школьников города с историей родного края через игры и викторины. «Ценность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в том, что оно помогает полнее ощутить и осознать связь литературы с жизнью»,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Антипова Наталья.

Еще один номинант — рег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узеев «Музеи в XXI веке»,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объединить людей, любящих свою профессию, свой край и свою страну,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его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С 2013 года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четыре региональных фестиваля,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Зая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25 ма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Премия «Жить вместе» призвана наградить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являют граждан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объединяются в сообщества и решают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Лауреаты премии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사할린에 새로운 요양소 건설

"러시아 관광 공사"는 사할린에서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요양소 건설을 위해 약 40억 루블리가 할당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관광 공사"에서 공동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알타이의 벨로쿠리하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новый санаторий

Госкорпорация "Туризм.РФ" собира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нов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на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порядка 4 млрд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Туризм.РФ" хотя бы привлечет соинвесторов.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екты готовятся в алтайской Белокурихе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박상태 소장, 정태식 어르신 댁 찾아

지난 26일 (수)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사할린 한인사 연구로 알려진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와 동행하여 정태식 어르신(91세)의 댁을 찾아 인사를 나누었다.



정태식 선생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고문으로, 사할린주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협회 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며 사할린 한인 역사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는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 통신원으로 장기간 활약했고 <새고려신문>에도 한인사에 대한 많은 글을 투고했다.

최근 몇 년간은 몸이 편치 않아 한인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날 찾아온 손님들을 매우 반가워했다.

박 소장과의 만남은 귀가 어두운 정태식 선생과 수기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손님들을 맞은 정태식 선생의 기분이 참 좋아 보였다.

한편 박 소장은 연초부터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 한인 행사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드리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진 율리아 제공)

사할린 주민들, 대청소에 나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서 청결의 달이 진행된 가운데 첫 번째 대대적인 대청소는 3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4월에도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5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월 28일, 5월 5일에 대규모 청소가 진행되지만,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주민 및 단체의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다. 도로 작업자들도 3월 중순 마지막 눈이 녹은 후 거리, 포장도로, 공공장소에서 겨울철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9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청소의 날에 참여하여 50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한인>(회장 천영근)단체에서도 이날 대청소에 참여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있는 요양소 마당의 쓰레기부터 치웠다.

4월 22일에는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회장 이 블라디미르)의 회원들이 망향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 현장에서 대청소에 나섰다.

(본사 기자)
(사진: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 제공)

민족지학 연구사, 사할린 한인에 대한 영화 촬영 기획

지난 18일(화) 6박7일 일정으로 이완 골로브노브 역사학 박사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민족지학 영화, 시각 인류학, 지역적 정체성, 시베리아 및 극동 민족의 민족지학 연구를 하는 골로브노브 박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쿤스트카메라(희귀한 것을 소장하는 박물관)의 선임 연구사로 활약하여 사할린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북방 소수민족 사할린 원주민 넵흐인에 대한 연구 영화도 촬영한 적도 있었다. 사할린을 방문하면서 섬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스스로 생겨 이번에 민족지학, 지역 정체성 방면에서 민족지학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사전 방



문하여 촬영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할린에 내도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그는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 조영제 1세 어르신, 조성용

화백, 배 워토리아 새고려신문사 대표를 비롯, 여러 동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골로브노브 박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우리말방송국, 주향토박물관, 주미술박물관도 찾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토) 그는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 협회의 사무실을 찾아 사물놀이, 케이팝(댄스)을 배우는 소년, 청년들과 만나 차세대 한인들을 촬영할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기뻐했다고 한다. 그의 사할린 한인 영화 제작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는 8월 촬영을 위해 사할린을 다시 찾을 계획이다.

한편 현지 30대의 동포들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사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애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대한민국 작가들 중 집필실 토지 문화관을 자주 이용했던 작가라면 아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박수 짹짹. 어쩐지 저 혼자 마이크 들고 사회를 보다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한다는, 아무튼. 요란한 드럼 소리와 함께, 두구두구두구두구 쳇!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역시 화가인 이제하 선생님입니다.

집필실 '토지'에서 이제하 선생님은 주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옆방, 뒷방 다 써봤는데, 가끔 열린 문을 통해 바라보면 신문지를 잔뜩 바닥에 깔고, 페인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감 냄새 지독하지요. '쫘'이 아니고 '뿜'이 멋 있으세요. 다 해진 청남방을 입으실 때가 많습시다. 그 뒤로 저 역시 멀쩡한 청남방을 해지게 만들어 잘도 입었지요. 대본 회의 때 종종 걸치고 나가는데요. 아쉬운 건 아무도 이런 제 패션에 대해, 제 패션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물질 않더라고요. 너무 연예인 같았나? ㅋ, 농담, 농담. 대학로의 <마리안느> 주인공이셨고, 지금은 따뜻한 제주도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든 굉장한 집중력과 털털한 웃음으로 주변을 밝게 비추실 분.

제가 기억하는 이제하 선생님 최고의 모습은 역시 노래를 부를 때였지요. 그 때 저처럼 되면 떠오르지 않는 영감을 핑계로 작가들은 휴게실에 웅기종기 모여 술을 마셨거든요. 잘 내려오지 않던 이제하 선생님까지 오셔서 발렌타인도 회사하시고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 때나 지금이나 제가 술이 약하니 기억이 가뭇가뭇하긴 한데요. 이 날 최고의 명장면은 이제하 선생님께서 <모란, 동백>을 부를 때였습시다. 굉장히 진지하게. 좋더라고요. 여성작가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저 역시 통기타를 거실에 두고선, 언젠가 '인기남'으로 떠오를 날을 다짐하며 연습하려고 했지만, 아, 또 다시 '역점'이라니, 아내가 시끄럽다며 배란다에 뒤흔렸습니다. 불쌍한 내 기타, 가련한 내 영혼. 무엇보다 Владимир Высоцкий의 <Конь>와 같은 명곡을 작사 작곡할 각오였건만, 아오, 아쉬워라!

김영랑 시인을 소개할 걸 어찌 얘기를 전부 이제하 선생님이 독차지해버렸네요. 언젠가 이제하 시인의 시를 소개할 때 그럼 그때 김영랑 시인의 면면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 정말이지 카드 돌려 막기는 해봐어도 시평 돌려 막기를 내가 할 줄은!”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러·중앙아 5개 한인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반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교민들 신변안전 유의해야"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한인 단체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해주·사할린한인회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한인회 등 5개 단체는 24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권 국가 모임) 한인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묵묵히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접하며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한인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와 CIS 한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

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높아졌다.

5개 한인 단체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 분쟁에 휘말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1차 공동성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유라시아 한인회 연합회에 속한 러시아 모스크바한인회와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한인회 등

4개 단체도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최근 정세와 관련해 한국에 불만을 가진 현지인들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민들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은 공지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 또는 특히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나 대화 등을 가급적 삼가 달라"며 "심야에 단독 외출 등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인 이상 이동하는 등 신변안전에 최대한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Филиал РЭМ откры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4 апреля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м музее СахГУ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ого проекта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РЭМ)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Она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открытием филиала РЭМ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первый филиал РЭМ за пределам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 2025 г.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здание для филиала музея,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овая экспозиция, оформлены выставочные зал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лекция. Ее прочел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археолог,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Василевский. Он рассказал об освоении побережья Тихого океана со времен палеолита и проблемах прибрежной и островной археологии Северной Пацифики.

К участникам лектория обратилась в своем видеовыступлении дирек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Купина: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открыт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ЭтноЛектория»! Во время лекций вы встретитесь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торые исследуют наше прошлое и традиции. Эти люд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посвятили изучению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На встречах мы вместе постараемся понять, почему сегодня так важно изучать традиции, и как он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ми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будущего».

К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ась и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заведующая филиала РЭМа. Она отметила одну из задач,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лектория: «Сегодня мы запускаем новый проект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Этот лекторий интересен и разнообразен по содержанию, потому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 и говорить о народах можно бесконечно много. Когда мы формировали расписание и определяли состав экспертов, преследовали задачи, чтобы говор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рассказывали нашим слуш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отделить мифы от научной правды».

Проект «ЭтноЛекторий» – это популяр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площадка,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ученые РЭМ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читать лек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этнографии, археологии и истории. Следующую встречу 28 апреля в 16:00 проведет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Лекция «Культуры Древней Мексики»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и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народам, которые появились и развив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Мезоамерики – майя, ольмеки, сапотекы, миштеки и ацтеки. Также Юлия Дин 9 октября, в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прочитает лекцию «Корей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вед и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поделилась с нами надежд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работой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ла РЭМ: «Я уверена, что музей, который знаменит своим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экспедициями и коллекциями, не обойдет своим вниманием 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ожет внести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научное изучение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сыграет роль в просвещении и освещении истор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м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скольку научных 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корейцам не так много».

Для справки:

Россий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РЭМ) – крупнейш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и, но и мира. Он находит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Инженерной улице, рядом со зданием Русского музея. РЭМ был основан как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дел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в 1895 г., в царствование императора Николая II,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воли и в память его отца императора Александра III.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музея была сформулирована как «представить картину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отекания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картину народов, обитающих в России и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соседстве с нею». Разместился музей в здании Михайловского Дворца со всеми принадлежащими ему флигелями, службами и садом.

Практически 130 лет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РЭМ был ведущим центром сбора и изучения памя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селявших простор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хранилищах музея есть предметы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первая коллекция поступила в 1903 г. от известного ихтиолога П.Ю. Шмидта, который во время своей поездки по Корее собрал свыше 300 предметов,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ие шляпы, украшения, одежду, утварь, наборы хирургиче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едметы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игры и акварельные рисунки. Отдельного упоминания заслуживает коллекция, собранная географом и краеведом Д.К. Соловьевым в начале XX в. в деревне Янчих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относящаяся к жизни и быту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ореи, мигрировавш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 середины XIX в.

Виктория Бя

Состоялся VI съезд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22 апреля 2023 г. состоялся VI съезд ООК,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и делегат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4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Калининграда до Камчатки.

Участники съезда заслушали отчетный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ООК за прошедшие 5 лет,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рассмотрели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ООК, Резолюцию VI съезда. Состоялось избрание нового руководящего состава.

Президентом —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ООК единогласно избран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Цо. В коллективный руководящий орган — правление ООК —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прежним его членам Николаю Киму (Уссурийск), Владимиру Киму (Крым), Нелли Эм, Вячеславу Киму (оба — Москва), избраны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ООК: Астраханского — Сергей Цой, Хабаровского — Бейк Ку Се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ООК избран Моисей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 Валентин Чен.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в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ОК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ставом, обновленным на V съезде, задачами и планами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ставят современна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мире и стране. При-

оритетом явились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содействие укреплен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их традиций, солидарности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ОК поддерживает курс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роведению СВО на Украине.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боре и направле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 помощи в их исполнени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долга перед Родиной. Такую работу ведут все региональные отделения ООК.

ООК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многих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АДН Росси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МИД России, Ро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оскв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ФНКА и НОО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Участвует ООК и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луба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деров,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Центра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съезда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копили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органи-

заторской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Фактически, ООК, руководители отделений ООК, местных НК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ссоциаций, науч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обладают компетентностью в сложной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азличных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итуациях.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характерен и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егионах, и для корейцев, занятых в центральных 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ст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Стратег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ООК нацелена на всё более активную насыщенную, продуктивную работу. Однако, многое ещё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чтобы россияне хорошо знали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с пониманием и уважением.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к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м, активным гражданам, являющим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едино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На съезде был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тьяна Вагин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лександр Калабанов.

С делегатами съезда встретился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Пак Хо.

ИА РУСКОР.

В Чонджу проходит 24-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С 27 апреля по 6 мая в Ч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проходит 24-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ройдет с участием известных деятелей киноискусства, членов жюри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а также руководства оргкомитета. Открыла фестиваль драма бельги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Жан-Пьера и Люка Дарденн «Тори и Локита». Сами братья Дарденн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и в РК, чтобы пообщать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любителями ки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едставлены 247 кинокартин из 42 стран мира. Среди них 122 раб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Он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23 экранах в шести кинотеатрах Чонджу, а 38 фильмов также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на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ах.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пеци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 40-летию Корейской академии киноискусства (КАФА), а также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кинематографу Восточной Азии.

(KBS World)

В РК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Korea Sports For All

С 27 по 30 апрел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ройдет 23-й 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Korea Sports For All.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28 апреля на стадионе Куми. В 2020 и 2021 годах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фестиваль не проводился,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прошёл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по отдельным спортив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В этом году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9 тысяч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7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около 13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Япо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девяти видам спорта,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футбол и бейсбол.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54 стадионах в 11 городах и уезд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о 43 дисциплинам.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с 2001 года.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пройдёт ежег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овета управляющих АБР

Со 2 по 5 мая в районе Сондо города Инчхона состоится 56-е ежег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овета управляющих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АБР).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это будет первое собрание, которое пройдёт в очном режиме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5 тысяч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 том числе, министры финансов и управляющие центральными банками. РК поделит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рамках собрания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РК, Китая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и управляющих центральными банками стран АСЕАН+3. Кроме того, готовится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РК и Японии.

На Кан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покажут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Фильм «Тишина» режиссёра Ким Тхэ Гона, в котором снялись актёры Ли Сон Гюн и Чу Чжи Хун, приглашены на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ак сообщили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фильм включён в программу «Полуночные показы». Он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борются за выживание на разрушающемся мосту, окутанном густым туманом. Секция «Полуночных показов» не относится к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Фильм «Паутина» режиссёра Ким Чжи Уна приглашён во вне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а «Хваран» режиссёра Ким Чхан Хуна в секцию «Особый взгляд». Фильм «Наш день»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закрытии секции «Двухнедельник режиссёров».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Ю Чжэ Сона «Чам» приглашён в программу «Неделя критиков».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К перебрались 34 северокорейц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3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а прибыли на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5 апреля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реди беженцев 5 мужчин и 29 женщин. Общее число беженцев с Севера,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составляет 33.916 человек. Данные о путях их прибытия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в интерес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чис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резко сократилось из-за ужесточения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нтроля.

Открытие границ привело к росту пассажирски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количе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рейс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о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9 млн 87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в 16 раз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слугами круп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Korean Air и Asiana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4 млн 47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45%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пассажи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исло клиентов бюджет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оказалось больш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прос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ездк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ослабление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COVID-19. В частности, в четвёрт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Япония, Тайвань и Макао возобновили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Приём на работу школьных учителей сократится на 20-30%

К 2027 году приём на работу учителей начальных,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 планир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на 20-30% от уровня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из-за резкого сокращ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4-2025 год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имать на работу по 2900-3200 учителей начальных школ, что на 18,6% мен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В 2026-2027 годах приём будет сокращён до 2600-2900 человек. Это на 27% меньше, чем в 2023 году. Приём на работу учителей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 в 2024-2025 годов сократится на 18,3%, а в 2026-2027 годах - на 28,5%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С 25 апреля по 1 мая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40-й фестиваль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В его программе 146 фильмов из 39 стран. В секции почётных гост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14 картин из США.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учаю 40-летия фестиваля подготовлена площадка, на которой можно увидеть все фильмы,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наград. Режиссёры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живом общении со зрителями. Подготовлены выставки, на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лены старые постеры, фотографии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связанные с фильма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на фестивале в разные годы. 1 м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13 картин, удостоенных наград в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RKI)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приняли Вашингтон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24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тправилс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в США, который,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может укрепить альянс двух стран, отмечающий в этом году своё 70-ле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был в Вашингтон 25 апреля. В тот же день он посетил Мемориал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круглом столе с участием около 30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двух стран и посетит Центр космических полётов имени Годдарда. Юн Сок Ёль в поездке сопровожд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из 122 человек.

26 апреля в Белом доме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президенты двух стран Юн Сок Ёль и Джо Байден согласовали новую концепцию расширенных мер сдерживания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принятой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говорится о создании ядерной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ы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конкретных планов применения расширен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Выступая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о своим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ллегой по окончании самм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регулярно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ядерного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угрозы режиму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нута такж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лучае ядерного напад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ут предприняты «быстрые, сокрушительные и реши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сех во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ьянса, включая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США, - отметил Юн Сок Ёль.

В качестве общей цели РК и США в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названа полн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документе конкретизированы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соблюдению Договора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Что каса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регуляр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координации действий двух стран, чтобы американские акты об инфляции 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ах помогли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цепочке поставок в област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С этой целью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диалог по н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ут активизированы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бмен эксперт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акими ка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батареи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био- и квант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альянс между РК и США на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о и космос. С целью поддержания обмена между будущими поколениями начнётся реализация специа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по обмену молодёжью.

Как отметил Юн Сок Ёль, принято также решение более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процессе реализаци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для реш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Президент США «реш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мер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поскольку они помогут укреплению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еулом, Вашингтоном и Токио, - сказ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Достигнуты такж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таких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как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достиж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KBS World)

Банковская прибыль как искус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рисками

Сеул, 27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Прибыл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мерческих банков, вышедших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ут,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хода из-за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СВО в Украине.

Активы банка Hana в России за прошлый год составили 1,28 триллиона вон (959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725,6 миллиарда вон в 2021 году.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а, достигну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16,3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на 158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анк начал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ртфель и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выходящие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Hana Bank был не единственным банком, получившим значительную прибыль в Росс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данным Woori Bank, его активы в Росс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ценивались в 786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по

сравнению с 522 миллиардами вон годом ранее.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банка в России также выросла на 176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Woori в 2008 году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банком, вошедшим в Россию.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я имеет филиалы в Москве и офис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Владивостоке,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орпораци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атриантов.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дания, что события в Украине ослабят бизнес,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о привело к неожиданному успеху для обоих банков. Капитал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рпораций, действующих в России, перетек в российские операции банков, поскольку российские банки стали объектами санкций США.

Кроме того, Банк Росси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л базовую ставку, оказав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операционную прибыль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анков. Базовая ставка в России росла в течени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2021 года, достигнув мак-

симума в 20 процен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на уровне 7 процентов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ение активов и прибыли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ростом рублевых депозитов, что привело к увеличению операционной прибыл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Woori Bank.

Однако оба банка проявляют осторожный подход к своим будущим операциям.

«С начала СВО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анк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окращал свои кредиты и облиг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введенным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Woori Bank.

«Мы отдаем приоритет управлению рисками, а не расширению активов в нашей российской операции в ответ на затянувшуюся войну»,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анка Hana. - «Мы продолжим поддерживать нашу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оддержк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рпораций и буд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реагировать с помощью наших планов действий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если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тся».

Ордер и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проживающих: кто и когда может входить в дома в Южной Коре

По закону в Южной Коре дл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чуж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сотрудни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должны иметь при себе выданный судом ордер.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отказать в проходе в ваше жильё.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следят з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м систем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 водопровод, канализация, газ, электричество, - обязаны проводить регулярные проверки устройств, но делать это тоже можно только в присутствии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ет в нем.

Правда, часто бывает так, что вы уже хорошо лично знаете того или и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 доверяете ей/ему, а проверки обычно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когда многие люди не находятся в квартире. В этих случаях некоторые люди при условии большого доверия к сотрудникам коммунальных служб могут сказать цифровой пароль от электронного замка, чтобы сотрудник лично вошел и все проверил в одиночку. Но это, подчеркнем, н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а ваше личное решение.

Вскрывать жилище без присут-

ствия владельца можно только в экстренных случаях: допустим, при пожаре, прорыве водопровода, что угрожает другим квартирам, либо когда есть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аличия угрозы жизни для жильца. Например, если пожилой человек живет один, на звонки он не реагирует и есть подозрения, что ему стало плохо. В таком случае обычно вызывают сотрудника поли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жилищно-эксплуата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и дома и уже вскрывают квартир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еул)

9 мая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ят военным парадом и праздничным концертом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нет военный парад. Вечеро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ожидает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тся салютом.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9 мая стартуют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Окна Победы», «Парад у дома» и другие. Подготовку к торжествам сегодня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езусловно,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Побе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пройт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едь это едва ли не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в году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Но главное – обеспечить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ветеранов и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Им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занима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 минздрав. Но в эти дни каждый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персональное поздравление и быть окружен особой забото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ветеранов и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котор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смогут быть на параде 9 мая, с 5 по 8 мая проведут персональные мини-парады у дома. Перед фронтовиками выступят военные оркестры 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с песнями военных лет. Также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ика стартует акция «Окна Победы» –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украсить окна квартир тематическими рисунками и портретами ветеранов. А с 25 апреля в регионе началась акция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 волонтеры будут раздавать символы победы в наиболее проходных местах.

9 мая торжества стартуют с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Мемориалу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тем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ый парад. Также в этот день будет развернута выставка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ечеро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ждет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тся праздничным салютом.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к акциям массово присоединятся островны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СВО. Бойцы отправят ветеранам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я с фронта.

– Мы продолжим акцию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этом году ее не будет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виде – с прохождением тысяч людей по улицам. Но десятки участников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на автомобилях» – они проедут на машинах, на стеклах которых будут портреты ветеранов. Также акция широко пройдет в соцсетях и на телевизионных каналах, в том чис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 ОТВ-Сахалин и АСТВ,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Андрей Фугенфилов.

5 ма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ует акция «Вахта памяти». На этот сезон у островных активистов вновь намечены большие планы.

– 21 мая стартует очередна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 три года у нас побывали более 200 поисковиков из 34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сследована большая территория, найдены останки 11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и различные предметы, позволяющие устанавливать личности.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местах обнаружения солдат мы устанавливаем красные звезды, продолжим и в этом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Также поисковики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ы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и по проекту «Вечный полет», когда обследуются территории, на которых когда-то потерпели крушение самолеты. В августе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вновь провед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турма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Многодетным матеря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могут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и найти работу

Главной темой очередной встреч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малоимущими семьям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осьбой подыскать для них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обратились три женщины,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ет четырех детей. Областные и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и повыс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емей.

Одна из многодетных мам в одиночку воспитывает двоих сыновей и двух дочерей. У женщины полно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есь доход семьи составляют социальные пособия и декретные выплаты. На время ей предложили вакансию младшего воспитателя в детском саду, который посещает младшая дочка. Параллельно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сможет нач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и после перейти на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Еще одна мама четверых детей работает продавцом в магазине, но хочет изучать бухгалтерию. С курсам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ке помогут в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для семьи решен, теперь они мечтают о собственном доме.

– Мы уже давно получили участок в Дальнем. Хватит ему проставать. У меня взрослые сыновья-помощники, младшие дети тоже подрастают. Хотим свое небольшое гнездышко на четыре комнаты,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мье подберут 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застройщика и помогут вступить в льготные ипотечные программы.

Другой жите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же потребо-

валось содействие в обучени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ока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обеспечивает папа, хорошее подспорье дают такж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Женщины предложили вакансии младшего воспитателя в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е «Надежда» в Луговом, а также оператора 1С и кладовщика. Многодетную маму предложе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Также она попросила помощи с устройством сына в детский сад.

– Ребенку 4,5 года, и он не разговаривает. Нужна помощь логопеда, дефектолога. Мы хотим в «Лукоморье» в Дальнем. Этот детский сад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таких детках, – расска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строить обоим младшим сыновей в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чтобы маме было удобно приводить и забирать дет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ГУ стартует летом 2023 год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возведени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СахалинТех» будет выделено 9,8 млрд рублей, 1 млрд рублей должен поступить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Масштаб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ждут не тольк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главного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но и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Как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запросы бизнеса,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СахалинТех»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в России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Он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и завершить в 2025-2026 годах.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явится на месте Дома офицеров, а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проживающих –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ахалинТех» попал во вторую волну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главный островной вуз претендует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бюджета РФ уже сейчас.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и получено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Остальные кампусы второй волны находятся только на стадии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начнут строиться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 участник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 отметили, что с реализацией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появятся тысячи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астет спрос на подготовку местны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Мы позиционируем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как вуз, который плот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бизнесом. Многие ведущ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траны столетиями занимаются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наукой.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на работе с дел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уз должен понимать запросы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е и переводить эти потребности на язык науки. «СахалинТех» станет полигоном, где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т собирать, апробировать и передавать инвестора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в Минобрнауки РФ.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одним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 2030»,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на острова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ГУ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12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страны.

Чтобы выяв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уже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сессии с бизнесом – резидентам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Есть запрос на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бирающихся в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х решениях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управлении цепочками поставок,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и технологий и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Мы должны быть уверены, что наша молодежь, окончив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ит работу с достой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стоит задача буквально с нуля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современный вуз. И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про стены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а и пр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приведение его к современному стандарту, привлечение лучших кадров.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гордиться сво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а дети – хотеть в нем учиться. Именно это является целью всех предстоящ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усилен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 мае должен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новый ректор.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Абилимпикс - 2023»

VIII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билимпикс» стартовал 24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ее 300 конкурсантов соревнуются в мастерстве по 27 компетенциям, среди которых: «Швея»,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Выпечка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Клининг» и други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чемпионата прошла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Участнико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гость чемпионат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делам инвалидов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талья Крель.

– Самым радостным для меня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ижение «Абилимпикс» процветает и развивается. Професси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были перечислены, позволяют каждому из вас найти себя. Желаю побед и надеюсь с большинством из вас встретиться в Москве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а будет связано с вами, ваш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умением и трудом. Благодарю ваших педагогов, мастер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ль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за то, что мы вместе в одной команде делаем одно очень важное дело, без которого наше завтра, наверное, невозможно, –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Крель.

Состязания проходят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школьники – от 14 лет, студенты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специалисты. В этом году добавлены н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 В этом году кроме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х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оказать свои силы в таких компетенциях как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Студийный фотограф», «Фьюзинг» – эт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литье из стекла, «Фармацевтика» и «Быстрое прототипирование». Мы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мся и идем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вижения «Абилимпик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тлана Кашкина.

Чемпионат «Абилимпикс» дает участникам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профе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перед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развить свои навык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влеченными своим делом людьми.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делов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ы,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пройдет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экскурсии.

Итоги чемпионата подведут 28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опадут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и буд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в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 после – побьются в первенстве лучших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20 по 23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в Москве.

Сахалинских педагогов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навигаторами детств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 директора по воспитанию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дет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можно до 7 мая.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свыше 120 «навигаторов детства». Теперь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учреждения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десяти регионов-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Ф и внедрила новые ставки советников в школах. В этом году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се 89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Цель конкурса – подготовить резерв будущих советник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воспитательную среду в своих школах.

– Появление советников – это появление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ебят, решение сложных вызовов для педагог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ветники по воспитанию сегодня помогают собирать в учреждениях обратную связь, совершенствуя работу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ветники по воспитанию работают в 68 городских и 55 сельских школах. Благодаря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ализуются важные проекты. К примеру, «Орлята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учающихс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Цикл лекций «Разговоры о важном» формирует у школьников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ь и уважение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нститутам. Особым воспитате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ыступает вовлечение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дет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Советники директоров по воспитанию поддерживают организацию, помогая школам открывать первичные отделения 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ях.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навигаторы детства» стали наставниками и для педагог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ни оказывали мето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в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Якутии и Бурятии.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должают наставн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огая Еврейскому и Чукотскому автономным округам.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Навигаторы детства 3.0»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воспитания, заявить о себе и стать для ребят настоящими проводниками в мир больших и маленьких открытий, – отмет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тор проекта «Навигаторы дет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Шелепов.

Сахалинских советников ждет обучен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детском центре «Океан», а самые активные конкурсант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значим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Году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Росси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навигатордетства.рф до 7 мая 2023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20개국 100여명 참가...

경북 청송 영덕군 포항시 돌며 취재활동

'제2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본격 개막했다.

'재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이하 세언협)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재외 언론의 정체성과 역할을 바로잡자는 기치아래 20개국에서 100여명의 동포 언론인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 경북 청송군 영덕군 등이 이번 대회를 후원했다.

김명곤 회장은 개회사에서 "처음 펜을 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재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며 언론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며 "(뉴미디어의) 난립 속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쫓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 내리건 정언명령은 단연코 '신뢰회복'이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는 6월에는 750만 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동포 언론이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의 소통과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촉진되도록 우리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정책적 지원 대책으로 뒤따라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재외 언론인은 각국 동포사회에 우리 말과 글로 모국의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재외 언론사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 외빈으로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상기 아시아N발행인, 조룡제 재외동포포럼 회장, 권태일 재외한인구조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김광열 경북 영덕군 군수 등이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연합뉴스 주최 환영 만찬이 이어졌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시민청에서는 재외언론 정체성·역할 논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김명곤 회장

이션학과 교수는 '재외언론인 나는 누구인가... 재외 언론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인과 시대정신... 리영희 선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재외 언론의 현재와 미래... 재외 한인언론의 기능과 역할', 김연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 '언론인과 직업윤리... 한국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주제로 강연 후 종합 토론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덕군, 포항시 등을 방문해 관광, 산업, 특산물 등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 활동도 펼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20개국 100여명 참가... 경북 청송 영덕군 포항시 돌며 취재활동한인언론인협회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의 한글 매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과 상호협력, 해외 언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출범한 단체이다.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
신성철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한류와 산림청 그리고 치유

관광(觀光)이라는 말은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밝은 쪽을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본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새롭다는 말도 빛과 관계있는 말입니다. 새는 원래 동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광이라는 말과 여행이라는 말이 다른 뉘앙스인 것은 빛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이라고 하면 화려한 곳을 떠올립니다. 멋진 곳, 굉장한 곳, 거대한 곳을 찾게 관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의 여행상품은 대부분 관광 상품인 셈입니다. 세계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보러 다닙니다. 첨단 산업을 구경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웬지 그런 곳에 갔다와야 관광의 표시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빛의 반대쪽을 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쪽은 어둠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면 불쾌하고, 불결하고, 부정할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을 차분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둠의 중요한 상징에는 구별하지 않음과 씩이 있습니다. 어둠은 화려하지 않은 우리 그대로의 삶인 셈입니다.

저는 빛의 반대쪽을 보는 여행을 '관암(觀暗)'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유적보다는 현지 사람의 삶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비싼 요리가 아니라 토박이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찾고 즐깁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화려한 숙소보다는 그들과 가까이 있는 숙소를 찾습니다. 관암은 차분한 즐거움입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처음에는 관광을 오지만 여러 번 온 사람은 점점 삶 속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제는 번쩍이는 관광지보다는 해변이나 숲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시골 마을을 찾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만난 작은 식당에서 맛난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나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 길동무가 되어준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관암은 그대로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합니다. 저는 관암이 한류 속에서 피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즐기는 여행은 걷기입니다. 주로 숲과 산, 그리고 바닷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 때 걸었는데 이제는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만큼 걷기가 좋은 곳이 드물다는 겁니다. 다양한 울레길과 둘레길도 좋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마련한 자연휴양림은 진정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연휴양림을 찾아서 걷고 숙박도 합니다. 숲길을 걷고, 숲을 호흡하며, 숲 속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장애길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를 위한 속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숲 해설이나 목공예, 명상 프로그램, 치유의 숲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저는 외국인에게도 한국에 오면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가보라고 권합니다. 새로운 한류는 문화와 자연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음악과 미술 등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숲과 길이 그대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지는 관암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자연휴양림 몇 곳을 추천한다면 안면도 수목원과 함께 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소나무가 좋은 대관령 자연휴양림, 가문비나무가 좋은 덕유산 자연휴양림,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좋은 장태산 자연휴양림, 삼나무가 좋은 제주 절물 휴양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숲이 좋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잣향기 푸른 숲과 함께 가보면 더 좋을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외교부, 2023년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후보 공모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시상...

접수기한은 5월 9일까지

외교부는 2023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포상은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이뤄지며,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포상 대상자 공적기간 자격기준은 각 훈격별로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

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이 안 되며,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을 할 수 없다.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다. 추천자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1인(단체)이 다수 후보자 추천도 가능하나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해야 한다.

추천 시 제출 서류는 ▲후보자 추천서(필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필수) ▲유공 1등급 훈장 협의(국민훈장 무궁화장 후보자 추천 시) ▲공적 증빙서류(있을 시, 별도 양식 없음) 등이다. 외국국적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해야 하며, 외국국적자 추천은 우리 재외동포에 한한다.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

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류 접수는 한국시간 기준 5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overseas@mofa.go.kr)로 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하다.(접수처: [우편번호 03172]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111호, 외교부 재외동포포상 담당자) 이메일접수는 5월 9일 24시 이후 도착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외교부(www.mofa.go.kr) 및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68905&page=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교부 재외동포포상(overse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출처 :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달리기" 하프 마라톤 참가자 모집

6월 4일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달리기" 하프 마라톤이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전 러시아 하프 마라톤인 "러시아 연방 달리기"와 함께 개최된다. 스포츠 애호가라면 누구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신청등록이 필요하다고 사할린 주체육부 언론부에서 전했다.

이 행사는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역사 공원 "러시아, 나의 역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마라톤 참여 외에도 방문자들은 인터랙티브 플랫폼, 브레이크댄스 토너먼트, 음악 프로그램, 빈티지 자동차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하프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등록 시 각 참가자는 500m, 1km, 5km, 10km, 21.1km 중 원하는 거리를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야 한다.

스타터 팩과 번호판 배포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스포츠ме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полумарафоне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4 июня пройдет полумарафон "Сахалинский забег" (0+),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интеграции с всероссийским физкультур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 "ЗабегРФ". Всех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мероприятию.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мероприятия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5 лет. Гости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ж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от партнеров, турнир по брейкдансу, музы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авка ретроавтомобилей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до 2 июня на сайте полумарафона.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каждому участнику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дистанцию — 500 метров, 1 км, 5 км, 10 км или 21,1 км, а также указать ФИО, год и дату рождения,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и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Выдача стартовых пакетов и номеров пройдет с 22 мая по 2 июня.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세계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지구는 다양한 시대의 메아리가 담긴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일 놀라운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유엔 총회는 4월 22일을 세계 지구의 날로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주 학생들을 위한 환경 행사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동양 김나지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6세 이상)이 열렸으며, 사할린 국립대학교 연합 협회회의 활동가들이 이 기념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 민족 간의 연대와 우정의 상징인 평화의 종 울림
- 흰색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된 그리스 문자 '테타'는 지구의 날을 상징
- 파란색 배경에 우주에서 찍은 행성 사진을 사용하는 비공식 지구의 깃발은 이 기념일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임.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보존 방법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르넨스코예 마을 도서관에서는 국제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라는 생태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학생들은 오늘날 지구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태 퀴즈에 참여하고 어머니인 지구를 기리는 그림을 그렸다.

В ч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Земли школьникам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сказали о сохранении экологии

Планета Земля похожа на музей, в котором можно увидеть отголоски различных эпох. Губите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человека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с каждым днем достигает невероятных масштабов, поэтому важно уже сейчас задумываться о реш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ротив та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экологии на нашей планете 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ООН установ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Земли, который празднуется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мира 22 апреля. В честь этой дат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ак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учащихся 6 класс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прошел открытый урок (6+),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активисты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та обучающихс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ях праздника:

- звон колокола Мир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солидарности и дружбы народов;
- символом дня Земли считается греческая буква тета, которую изображают зеленым цветом на белом фоне;
- еще одним символ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неофициальный флаг Земли, для которого используют фото планеты, снятое из космоса на синем фон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школьник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суждении влияния человека на природу и способах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 в Горненской сель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Земли прошл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беседа-диалог "Берегите землю, берегите!" (0+). Школь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о планете и о том, как важно сегодня работать над сохранение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Ученик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викторине (0+) и нарисовали рисунки в честь Матери-Земл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